

Venture 즐겨찾기

# KMIA

그동안 국내 모바일 산업은 수출 부문에서 반도체를 추월할 정도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이에 주변 경쟁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으며 기술수준 또한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 급변하는 해외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창립된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야심찬 협력사업 안으로 들어가 보자.

## 세계 제일의 모바일 강국을 위해 뭉치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홈페이지 ( <http://www.komobile.or.kr> )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홈페이지에서는 모바일 산업과 관련된 최신 뉴스와 모바일 관련 연구보고서, 각종 세미나 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업동향, 해외 진출 정보 등 모바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모

바일 산업이 유망한 콘텐츠 사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일부 모바일 부품과 소재 기업, 완성품 업체, 콘텐츠 기업들 간의 개별적인 컨버전스화 현상이 눈에 띄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일부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우리 모바일 산업 전체의 과제라 볼 수 있다. 이에 2004년 12월, 모바일 관련 기업들 간의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출범했다. 현재 협회는 회장사인 엠텍비전을 주축으로 중견 휴대폰 부품업체들과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기업으로 구성된 모바일 관련 전 분야의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 모바일 관련 기업의 권익 보호

협회가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 국내 모바일 기업의 해외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보유 특허기술의 공유 및 침해 시 공동 대처한다.

**셋째,** 국내 모바일 관련 기술을 표준화시킨다.

**넷째,** 국내 모바일 관련 장비의 공동 구매를 유도한다.

**다섯째,** 모바일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여섯째,** 협회 회원에게 전문적인 모바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 사업들을 통해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 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또 협회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기술이 뜨고 지는 세계 모바일 산업의 현장 속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품목에 해당하는 모바일 기술을 관련 기업과 학계 및 연구계가 공동으로 긴밀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해외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

## 모바일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협회는 모바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설립 시 단체 등록을 수출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산하단체로 발족한 바 있다. 이에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중점에 두고 현재까지 중국, 대만, 홍콩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수출상

담회를 개최했으며 이어 미국, 핀란드에 국내 모바일 기업을 주축으로 한 수출상담회 및 경제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모바일 관련 기술의 공유를 위해 지난 5월에는 '모바일 비디오 서밋 2005'를 성공

리에 주최했으며 북경에서 중국 모바일

커뮤니케이션협회와 공동으로 '모바일

품질관리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기술만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원칙하에 '첨단 모바일 기술협력

포럼'을 발족하여 관련 기업 간

기술교류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나

아가 협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통 모바일 단체로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으로 실질적인 활동과 회원사 지원 사업

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 블루오션 지역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협회는 IT수출전문지원기관과 협력해 블루오션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는 것을 2006년도 사업 방향으로 정했다. 그동안

협회는 해외 시장 수출에 있어 미국, 서유럽, 중국, 대만, 홍콩 등 이미

모바일 시장이 성숙된 곳을 집중 공략했으나 2006년도부터는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등을 타깃 시장으로 정하고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이 검증된 기술 보유기업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 실적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회원사를 각 분과로 세분화하여 향후 국제 기술 세미나를 개최

하고 국내 기술의 해외 IR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2월 중국의

휴대폰 제조사 CEO가 대거 참가하는 '한·중 모바일 CEO 포럼'의 공동 개최

제안을 받아 검토 중이며 이 행사를 계기로 '첨단 모바일 기술협력 포럼'을

'한·중 모바일 기술협력 포럼'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경영기획실 강대석 실장

해외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의 모바일 산업이 세계의 여러 기업들과 경쟁하며 맹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관련 학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협회는 지난 상반기에 기반을 다지는 시기로 활동해 왔으며 하반기부터는 협회 회원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지원 사업을 확보하여 회원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02-2108-3951)

